



신흥국의 모바일머니 확산과 보험산업

장윤미 연구원

요약

모바일머니란 은행계좌 없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결제가 가능한 디지털화폐로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음. P2P를 통한 자금 이체, 공과금 납부 등에 활용되나 보험료 납입에 있어서도 최근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모바일머니는 아시아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베트남은 향후 2년간 모바일머니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함. 비대면을 통한 결제방식과 높은 시장침투율로 모바일머니는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모바일머니란 은행계좌 없이도 휴대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결제가 가능한 디지털화폐로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 접근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 모바일머니는 피쳐폰과 스마트폰에서 모두 구현이 가능한 전자화폐로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계정을 등록하기 때문에 은행계좌가 필요한 디지털지갑(Digital wallet)이나 모바일뱅킹과 구분됨
 - MNO(모바일네트워크사업자) 혹은 MNO와 파트너 관계인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머니 중개인이라 불리는 지역 소매점을 통해 계정 잔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 전 세계에 등록된 모바일머니 계좌 수는 약 12억 개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모바일머니는 P2P를 통한 자금 이체, 공과금 납부, 상품 구매, 송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저축 같은 금융서비스에도 활용 가능함
 -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¹⁾ 2020년 월 단위 활성 모바일머니 계좌 수는 전체 등록 계좌 수의 1/4인 약 3억 개이며 현재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96개국에서 사용됨²⁾
 - 모바일머니 거래내역 중 현금 입출금을 제외하고 P2P를 통한 자금 이체 비중이 가장 높고 급여와 같이 기관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대량 지급, 개인의 공과금 납부, 상품 구매, 송금, 정부의 사회보조금 이전 등에도 사용됨
 - 일부 국가에서는 신용과 저축 같은 금융서비스에도 모바일머니를 도입하고 있는데, 모바일머니 사용 기록은 대출 시 신용점수 평가에 활용되기도 하며 모바일머니 기반의 저축계좌도 개설이 가능함
- 모바일머니는 보험료 납부방식으로도 사용되는데 금융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관리가 쉽고 보험회사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최근 모바일머니를 채택하는 보험회사가 늘고 있음

1) GSMA(2021), "2021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in Mobile Money", pp. 8~11

2) 전 세계 등록 모바일머니 계좌 수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가 각각 45.2%의 비중을 차지하여 두 지역을 합할 경우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함; GSMA(2021), "2021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in Mobile Money", p. 8

- 보험회사는 MNO 및 기타기관(은행·정부·제3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 마이크로보험을 판매·운영하고, 소비자는 모바일머니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나의 보험회사인 BIMA는 MNO인 보다폰과 파트너십을 맺고 여촌 지역을 중심으로 모바일머니 기반의 생명보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파키스탄의 MicroEnsure, JazzCash, 콜롬비아의 DaviPlata와 Seguros Bolivar와 같은 보험회사가 모바일머니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수취함
 - 모바일머니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원거리 지역이나 금융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계약자도 보험료를 쉽게 납부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또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신흥국 보험회사들은 휴대폰에 충전된 금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으나, 최근 모바일머니로 전환하는 추세임³⁾
- 2020년 GSMA가 조사한 보험회사 가운데 약 64%가 모바일머니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휴대폰 충전 금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는 이의 절반가량인 약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휴대폰 충전금액에서 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은 화폐 분류 규정이나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여러 한계를 보인 반면, 모바일머니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 모바일머니 시장은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베트남은 2021년부터 향후 2년간 모바일머니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함
- 모바일머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먼저 확산되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가 전 세계 모바일머니 등록 계좌 수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등록 모바일머니 계좌 수는 성인 인구의 약 32%, 남아시아는 약 24%에 달함(2014년의 경우 각각 6%와 4% 정도였음)⁴⁾
 - 아시아에서 모바일머니가 사용되는 국가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있음
 - 베트남은 2021년 3월부터 2년간 모바일머니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통해 농촌과 지방의 전자결제 사용률을 높이려 함
- 모바일머니는 최소한의 대면접촉과 높은 시장침투율이라는 장점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효율성을 입증하였고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신흥국은 은행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률은 높기 때문에 모바일머니의 확산 가능성이 높음

3) GSMA(2021),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on Mobile Money 2021", p. 50

4) GSMA(2020. 8), "State of the Mobile Money Industry in Asia, 2019"